

노사 화합의 안전관리로 무재해 사업장 구축

(주)풍산 부산사업장 문상명 안전환경팀장
취재 정태영 기자 anjly@safety.or.kr



(주)풍산 부산사업장은 우리나라 군의 전투력 향상과 자주국방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탄약 등을 제조하는 전문 방위기업이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미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동지역 등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주)풍산 부산사업장은 안전관리에서도 손꼽히는 사업장으로 평가된다. 2002년 3월 25일 무재해 7배 달성을 시작으로 10여 년 사이 무재해 목표 5배 이상을 세 차례나 달성했다. 여기에 올해 8월에는 '무재해 8배 달성'이라는 위업도 이루어냈다. 이러한 성과 속에 올해 산업안전보건건강조주간 기념식에서는 영예의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곳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안전사업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에는 안전환경팀 문상명 팀장의 역할이 매우 컸다. 철두철미함 속에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그만의 안전관리 노하우는 (주)풍산 부산사업장이 안전신화를 써나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

순간의 방심은 대형사고로 직결

(주)풍산은 화약 중에서도 매우 예민하고 위험한 기폭제 원료 및 뇌관을 제조하고 있다. 또 각종 완성 탄을 생산하기 위해 프레스, 호이스트 등 350여 대의 위험 기계기구와 화학설비를 취급하고 있으며, 각종 화공품도 대량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이곳에서는 조그마한 방심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항상 안전관리의 경계를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문 팀장은 매일 작업 전 위험 예지 훈련을 철저히 강조한다. 부서 자체적으로 안전의식을 다지고 기본적인 안전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신념에서다. 그리고 작업의 '절차화'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 재료 투입부터 생산, 포장, 출고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즉시 시정 명령, 경고장 발행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 수여식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안전활동의 활성화 도모

모든 작업은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뤄질 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안에서 안전관리 활동이 이뤄져야, 공정별·작업별 안전이 조화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 및 문제점들도 신속히 개선될 수 있다. 문 팀장은 이러한 시스템 측면의 안전관리를 누구보다 강조한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장에 각종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대표적으로 KOSHA18001과 OHSAS18001 등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정착시켰고, SHEQ 통합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SHEQ 시스템의 구축으로 안전, 보건, 환경, 품질 관련 총 93건의 규정을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장 전반의 작업 및 안전활동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효과를 얻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안전관리 능력

체계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은 안전관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주)풍산 부산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 프로그램은 매우 많다. 기계·기구·설비 변경 시 안전성 검토제도, 유해·위험작업 허가제도 등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 특성에 맞는 관리항목을 지정하여 매월 단위로 재해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무재해 포상제도, 노사 합동점검, 근골격계 예방관리제도, 종합건강 진단, 금연프로그램, 체력단련 및 물리치료실 운영 등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03년부터는 미국·유럽의 화약류 안전 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장의 화약류 제조 및 저장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안전관리 활동의 철저함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미국에 화약류를 수출하는 업체는 미국 군수품 계약 및 품질보증기관인 DCMA로부터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곳은 2004년부터 총 6회의 수검을 받아 매년 우수 안전관리 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직원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관리 추구

“사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안전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노사 구분 없이 구성원 모두가 앞장서야 하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활동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직원들이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직원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안전 활동은 그만큼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문 팀장은 노사화합과 근로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문 팀장은 안전에 대해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경영자에게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2010년의 경우 총 19건의 위험시설을 개선하는데 약 24억 원, 지난해의 경우 총 21건을 개선하기 위해 18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안전환경 탐장으로서 경영진과 현장의 가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제품 생산기업이라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경직되고 딱딱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주)풍산 부산사업장을 직접 방문해보면 그러한 선입견이 단번에 사라진다. 어느 곳보다 즐겁고 활기찬 직장문화가 조성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중심에는 분명 안전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안전에 대해 직원들을 독려하고 이끌어나가는 문상명 팀장의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주)풍산 부산사업장의 안전문화는 더욱 튼실하고 단단해질 것이라 확신한다.☺